



2026 VISION

혼혼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내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화가 난 적이 있나요? 그럴 때는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다윗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어요.

사울 왕은 오랫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회예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내가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돌아갔어요. 다윗은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를 내고 똑같이 갚아 주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래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